



대구엔 입석대, 광주엔 팔공산 달빛동맹 '시민의 숲' 3월 개장

광주시와 대구시가 맺은 '달빛동맹'의 상징인 '시민의 숲'이 오는 3월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광주시 북구 오룡동 영산강변에 들어선 '대구시민의 기념 숲(오른쪽)'은 대구 팔공산에서 가져온 돌로 팔공산 상징 조형물을 세웠으며, 현재 공원 바닥 공사와 안내판 설치 등 마무리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최근 완공된 '광주 시민의 기념 숲(왼쪽)'은 대구시 두류공원에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입석대) 조형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물, 시목인 은행나무 등으로 꾸며졌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매일신문=성일권기자

녹물·누수... 광주 상수도관 불안하다 자원봉사자 방제작업 참여 제한

전체 10.5% 390km, 20년 넘은 노후관 누수율 11%... 타 광역시 3~7%와 대조 매년 133억 땅속으로... 교체예산은 줄어

광주 도심 땅속 3733km에 혈관처럼 뚫려 있는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작업이 터디게 진행되면서 전국 특·광역시단위 중 상수도관 누수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광주의 전체 상수도관은 3733km이다. 이 가운데 설치한 지 최소 20년이 넘은데다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고 부식 등으로 물이 새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은 390km(10.5%)에 이른다. 특히 이들 노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강관 등으로 돼 있다.

노후관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누수율 누수율도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인 11%다.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지난 2007년(9%)보다 오히려 2%나 늘어났다. 광주의 연간 누수량도 1927만8000m로, 일

광주 상수도관 현황

총길이 3733km
교체 시급 노후관 390km

누수율 누수율 11%
특·광역시 유일 두자리수

연간 누수량 1927만m³
수도요금 기준 133억원

노후관 교체 예산
2012년 40억 → 2013년 33억 →
2014년 17억으로 매년 줄어

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낡은 상수도관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관이나 회주철관이라는 점이다. 1993년까지 상수도관으로 쓰였던 아연도 강관은 내부가 물에 닿으면 빠르게 부식되는 철로 돼 있다.

광주시는 매월 누수율에 대해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기준 항목인 58개보다 많은 18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모두 적합한 결과가 나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수율 검사 시 수도꼭지를 틀 뒤 최대 수분 간 흘러보낸 물을 채수한다는 점에서 정제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이 미지근한 단계를 지나 차가워질 때부터 사용해야 이물질이 섞여 나오지 않는다"면서 "수돗물을 어느 정도 흘러보낸 뒤 사용하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수 기름 유출

"지역 수산물 이미지 훼손" 여수시·해경 결정 피해지역 주민들 반발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여수로 향하는 자원봉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이 돌연, 자원봉사자의 방제 작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관련기사 2·5면>

여수시에 따르면 5일 여수시 신덕동 유류오염 현장 지휘소에서 여수시·해양경찰청·신덕마을 주민·여수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피해보상대책회의'를 통해 6일부

터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 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지역민과 여수시·해양경찰서·GS칼텍스 등이 주관해 방제 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연안 오염범위가 한정적이며 협소한데다 유류오염도 낮다"는 것 외에 "기름 유출 사고로 여수산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산물 위관이 급감하는 파동을 겪고 있는 때"라는 게 결정적 이유다. 7일 참여키로 했던 9개팀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여수로의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기름 유출량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 전남만 해도 "해안 방제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과 전혀 다

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기에 해양 생태계 파괴 수준 등을 가늠할만한 여수 해역에 대한 긴급 영향·조사 결과도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난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바다 생태계 보호라는 큰 틀에서 방제 작업을 집중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한 뒤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방제 작업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수산물 이미지 훼손을 막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당장, 피해 지역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방제 인력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박정필기자 halo@

소치 동계올림픽 오늘 개막

소치 동계올림픽이 7일 오후 8시 14분(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14분) 러시아 소치의 피시트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열고 23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4면>

이번 대회는 모두 88개국에서 2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한국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6개 종목에 역대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가장 많은 71명(남자 41명·여자 30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대회 2연패를 준비하는 '피겨 퀸'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세화여고)는 한국 선수단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이다. /송기동기자 song@

바다 생태계 보호라는 큰 틀에서 방제 작업을 집중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한 뒤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방제 작업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수산물 이미지 훼손을 막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당장, 피해 지역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방제 인력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박정필기자 halo@

윤진숙 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박지영기자 jpkp@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2월호

1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그 가치와 국내외 성공도시 탐구 남도의 근대문화유산 보고를 찾아서

그 가치와 국내외 성공도시 탐구 남도의 근대문화유산 보고를 찾아서

기획 '만화 하위시대는 옛말' 웹툰은 질주한다

등장 10년만에 콘텐츠계 대세인 웹툰의 힘과 광주웹툰의 가능성 진단

특집 근대문화유산을 주목하라

도시재생 키워드로 떠오르는 근대문화유산

그 가치와 국내외 성공도시 탐구 남도의 근대문화유산 보고를 찾아서

기획 '만화 하위시대는 옛말' 웹툰은 질주한다

등장 10년만에 콘텐츠계 대세인 웹툰의 힘과 광주웹툰의 가능성 진단

예향 초대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 강조하는 신안 출신 철학자 최진석에게 삶의 길을 묻다

마주앉은 책과 사람 | '우리시대 스타PD' 주철환을 만든 책, 그리고 겸손한 그만의 삶의 철학

이달의 아티스트 | 광주시립교향악단 신임 지휘자 이현세가 꿈꾸는 음악 "마음이 통할 때 흐르는 진짜 음악"

이사람 | 철거위기 문화유산 살려낸 우리문화유산 지킴이 '장진수' "남았어도 소중한 건 지켜내야죠"

문화현장 | 2014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3인의 문학이야기 "신춘문제가 끝난 뒤, 문학은 시작된다"

문화 공간 | 청춘들의 발발한 아지트 '청춘건강디자인센터'

스타 데이트 | 응답하라 1994의 히로민이 말하는 나의 작품, 나의 연기 고아라에게 성나정은?

영화 동행 민선 클럽 | 영덕정 국궁동호회원들에게 듣는 전통 활쏘기의 매력

우리 땅, 속살 여행 물과 물, 완벽한 화음 이론 부안

아트인 리빙 | 소블라티에가 들려주는 수제 초콜릿의 세계